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회개와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선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사순절을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금주 수요일(3월 1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실시

금주 수요일(3월 1일)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절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4월 16일) 전날까지 평일 40일과 여섯 번의 주일을 합해서 46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사순절 기간(3월 1일~4월 15일)에는 더욱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3월 1일(수)부터 4월 9일(주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주력 교구를 중심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교구는 주력 교구표를 참조하여 해당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 교구뿐만 아니라 매일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소마'(시 119:147).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일표

2006년 3월 1일(수) ~ 4월 9일(주일)

날짜	주력교구	날짜	주력교구
3월 1일(수)	1, 14, 18교구	3월 21일(토)	5, 8, 15교구
3월 2일(목)	4, 10, 13교구	3월 22일(일)	2, 11, 16교구
3월 3일(금)	5, 8, 15교구	3월 23일(월)	9, 12, 17교구
3월 4일(토)	예배위	3월 24일(화)	3, 6, 7교구
3월 5일(주)	예배위	3월 25일(수)	예배위
3월 6일(월)	2, 11, 16교구	3월 26일(목)	예배위
3월 7일(화)	9, 12, 17교구	3월 27일(금)	1, 14, 18교구
3월 8일(수)	3, 6, 7교구	3월 28일(토)	4, 10, 13교구
3월 9일(목)	1, 14, 18교구	3월 29일(일)	5, 8, 15교구
3월 10일(금)	4, 10, 13교구	3월 30일(월)	2, 11, 16교구
3월 11일(토)	예배위	3월 31일(화)	9, 12, 17교구
3월 12일(주)	예배위	4월 1일(수)	예배위
3월 13일(월)	5, 8, 15교구	4월 2일(목)	예배위
3월 14일(화)	2, 11, 16교구	4월 3일(금)	3, 6, 7교구
3월 15일(수)	9, 12, 17교구	4월 4일(토)	1, 14, 18교구
3월 16일(목)	3, 6, 7교구	4월 5일(일)	4, 10, 13교구
3월 17일(금)	1, 14, 18교구	4월 6일(월)	5, 8, 15교구
3월 18일(토)	예배위	4월 7일(화)	2, 11, 16교구
3월 19일(주)	예배위	4월 8일(수)	예배위
3월 20일(월)	4, 10, 13교구	4월 9일(목)	종려주일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침례)

집과 가정 House & Home (제 3:20)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뒤에는 무수한 계획과 목적과 수고와 있다.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바쳐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는다. 우리의 돈, 지식, 지혜를 모태에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집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지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의 종합 계획(Master Plan)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리창

우리 집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집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유리창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유리창과 세상을 향한 유리창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집안으로 들어간다. 결혼은 가정을 만드는 시작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결혼이 빛이 없는 어두운 집으로 문이 닫혀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맺은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정을 택하셨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다(마 5:48, 6:9, 7:11). 누가복음 11:11-32에 기록되어 있는 땅자의 비유도 가족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인간의 가정은 천국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다. 인간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태어남으로 들어가게 된다(요 3:3; 갈 6:15; 요일 3:9).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오직 한 가지, 영적인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가정과 유사한 점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과 확복하게 되는 방법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요 3:16; 고후 5:18, 19). 하나님께서는 먼 타국에 가 있는 우리를 찾으시며 돌아오라고 간청하신다(사 68: 마 11:28).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의지로 범한 죄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연결시켰다(엡 2:14-18).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배운다(행 16:3). 그의 속성, 본성이 사랑 그 자체인 것이다(요일 4:16).

하나님께서는 엄위하신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 오히려 모든 한계를 뛰어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오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말씀뿐만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다(요일 3:16, 18).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은 인간들의 가정에 변화를 준다.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인간의 존엄성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은 결혼에 관하여도 말씀하신다(막 10:6-9).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혼관이 달라진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모아 그의 팔로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막 10:14). 그 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요 15:13). 사랑의 개념이 알파벳인 ایم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념은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 사랑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엡 5:2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가정마다 또 가족,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유리창이 있어야 한다. 이 유리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때에 가족으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없는, 무덤과 같은 집이 아니기를 바란다.

출입구

우리의 집에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출입구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정을 통하여 오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바벨레함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 우는 한 아기를 태어나신 것이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인류에게 들어오시는 관문이 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놀랄 만한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어느 가정에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다(제 3:20). 성경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는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결혼과 가정 안으로 모셔들이면 된다. 들어오시면 약속하신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며 변화시켜 주신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다. 부모와 자녀들이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나누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구원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 그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26일) 찬양 예배 세계 제1차 헌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이세례는 오후 3시 갈릴랴동)

*2006년 제2차 성한식이 다음주일(3월 5일) 4부 예배부터 5부 예배 세계 있습니다.

JESUS' TEMPTATION

⁽¹⁾An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bout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²⁾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Luke 4:1,2)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Lent, sometimes referred to as Temptation Sunday or Wilderness Sunday. The gospel of Luke 4:1-13 tells the story of Jesus' temptation in the desert during His forty-day and forty-night fast, which is the same length of time as Lent season. Genesis 3:1-7 tells the story of man's first temptation in the Garden of Eden, which led to an unimaginable catastrophe that plagues humans until the end of this world. The dreadful consequence of our ancestor's sin makes our world enormously evil, and our life extremely terrible. Many Christians do not realize that Adam and Eve's failure to triumph over temptation is the reason for our suffering now and until Christ's return or our death. Today's Bible verses tell us,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Hi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took place at the beginning of his public ministry, and was the same kind as Adam and Eve experienced in the Garden of Eden. The story of His temptation is an excellent sermon, especially to those who follow Him because it gives them a very real warning.

The human heart is born with self-indulgences and pride. 1 John 2:16 tells us,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se three worldly practices originated from man's first test of temptation, and they came into the world after man failed to overcome them, which is why we still think about them. They continue to decay our hearts because these three kinds of temptation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s, and boastful pride of life) control human beings, making us self-centered instead of God-centered. The devil came to Jesus with the same three categories of temptation, and He overcame them. His victory shows us exactly what we lost from the beginning.

Jesus prevailed over the devil's temptation with the word of God. He did not beat the devil through His own wisdom or experience. 2 Timothy 3:16&17 says,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Jesus conquered temptation with nothing but the word of God. God's word is stronger than man's powerful curse. The devil beat man the first time, but this same devil could not defeat the Messiah, even though he put together the same three categories of temptation. Jesus showed us that only the word of God could win over temptation.

Too many Christians living in this 21st century do not think about Satan and his demons. They attribute bad things to other people. They think bad people control darkness, not the devil. When asked who controls evil, they answer correctly, but they do not really believe it. Please believe that Satan and his demons bring as many curses as they can to you and this world. Just as Adam and Eve were deceived, so Satan desperately wants to deceive and devour you. When you have trouble, do you think about the temptation in the Garden of Eden and its horrific consequences? Do you realize how much worse you are

than Adam and Eve? They only ate one piece of forbidden fruit! Without doubt, you have sinned more, but you do not really think about Satan. He and his demons wreck havoc everywhere. They have the power of darkness on this earth. Their tremendous destruction spreads war, battles, and terror throughout the world. Look at the terrible reports in the newspapers. Do you hold Satan accountable for it? When terrorists struck New York on 9/11, some people mentioned Satan a little bit, but not much. When you open your spiritual eyes you will see how many people, including me, Satan plays with. As Christians, we need to be very concerned, not just a little concerned. Too often we do not want to look, we just want to enjoy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While Jesus stood before the high priest and Pontius Pilate, all his disciples departed from Him. They were not believers. If they had just a little faith, they would have seen Satan's handiwork, and could have stood up and prayed. Instead, they relied on their own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and thought about human beings. Cowards, drug addicts, and criminals do not read the Bible. They do not live the Bible. They do not get advice from the Bible. The Bible keeps telling us what terrible sinners we are, and that we cannot overcome our problems on our own, which is why God sent Jesus Christ to this world. Jesus died for your sin. You cannot live this life with your own wisdom, knowledge, or power. It is impossible, and you will fail, which is why you need to come to Jesus. If you go your own way you will lose, an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will gain more power. James 1:27 says, "Pure and undefiled religion in the sight of our God and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unstained by the world." If you go forward with your lusts and pride, you will become selfish, but if you read the Bible, spiritually look at the world, and live as a Christian in the sight of God not your own eyes, you will visit the orphans and widows in distress, and keep yourself unstained by the world.

Wake up my friend! Now is not the time to relax. As the season of Lent progresses, we need to be more sensitive about the presence of God. We need to listen to the Holy Spirit, and search deep within our hearts to examine our spiritual condition. Take the time to read chapter 5-7 in the gospel of Matthew where Jesus describes and explains the message of God's kingdom. When you read this beautiful Sermon on the Mount, you will realize how much you are deceived. Kneel down to Jesus and confess that the power of the devil is too strong for you and that you cannot beat temptation without the help of Him, the Holy Spirit, and God's word. Admit that you just cannot do it, and that Jesus is right when He says that you need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1 John 5:4&5 says,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Right now,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see how wonderful it is that He beat this temptation. Let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bring victory to your life forever. Amen. ✠

다음 주일 설교

시험받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1,2)



김성관 목사

오늘은 사순절의 첫째 주일로 시편 주일 혹은 광야 주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4:1-13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주야 곧 사순절과 동일한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7에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시험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고, 결국 인류는 이로 인해 세상 끝 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조상의 죄가 가져온 무시무시한 결과로 인해 이 세상은 극도로 악해졌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이 제법하시거나 우리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1,2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광야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체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욕심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 의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한일서 2:16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 가지의 세속적인 관행들은 유혹에 대항 인간의 첫 번째 시험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인간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데 실패한 이후에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욕심들은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욕심(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의 생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만듦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동일한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유혹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에 실패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16,17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내려진 그 어떤 저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인간을 이겼지만 메시아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똑같은 세 가지 것으로 유혹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귀신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마귀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어둠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을 지배한다고 몰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면서도 실상 그들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그의 군대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온갖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삼키려 하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유혹과 그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니까? 자신이 아담과 이브보다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단지 금지된 열매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따름입니다. 두 말할 필요없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여기저기에서 참혹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파괴력은 전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을 폐허로 만들었을 때도 단지 몇몇 사람들만이 사단에 대해 실제 언급했을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사단이 죄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단의 체계에 대해서 명확히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위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게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 곁에는 한 사람의 제자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챘을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의지했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겁자, 마약중독자, 범죄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 또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27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만약 계속해서 정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잡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했는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이 주를 끝나는 상사순회를 읽어 보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악한 선택에 속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말씀의 도움없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5:4,5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께 영원토록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링거를 쫓은 채로

사실 나는 3년 전에 충헌교회에 등록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새가족부의 권유를 받고 다시 나와 처음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나에게 청지기 훈련은 주님이 주신 기회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병행 수술로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믿음을 주셨고, 링거를 쫓은 채 청지기 훈련에 참석했다.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아픔을 참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까지는 성경을 찾는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일 등 모든 것이 낯설지만 말씀만큼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번 청지기 훈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내 육신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다. 특히 바뀌어진 삶은 나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은 더욱더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 주시고 나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큰 은혜로 다가왔다. 우선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겠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나의 바뀌어진 삶이 새 봄과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서경희(새가족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학생이요 금요 집회에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이끄셨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와 다른 재미를 찾아 살아왔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바뀌어진 삶을 살지 못했던 나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알았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거운 죄책감 없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제 나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천국 일꾼이 되기를 매일 기도하였다. 김현순(중등 2부)

◇내 마음 속의 주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만큼 돈이나 명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장 우선 되는 가치이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은 돈과 명예만을 무조건적으로 갈구하며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내 자신도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휘말려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답이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와 함께하며 조금씩 주님과 닮아가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만큼 고맙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이 넘쳤다. 또한 내가 왜 청지기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일꾼 삼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청지기 훈련에 나를 불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신철민(고등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어릴 때 엄마를 따라 몇 번 가본 게 전부였던 청지기 훈련, 올해부터는 새로운 다짐으로 금요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이번 청지기 훈련은 내게 더욱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바쁜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예수님을 내 귀주로 영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삶은 180도 바뀐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해 먹고 자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버려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괴로울 때 가만히 토닥여 주시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당신게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천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난 어릴 게든 당당할 수 있다.

"바뀌어진 삶" 내가 바꾼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바꾼 것도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통 뒤집어 주셨다. 이 날, 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바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조수빈(중등 3부)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를 위한 충헌장학회



이 훈
(장로, 충헌장학회 부회장)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땅 끝 열방으로 나아가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총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헌장학회를 섬기는 저희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 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

충헌장학회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을 돕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군사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헌장학회의 장학금은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속한 부서에 잘 출석해야 하며 어느 부서에서든지 충실히 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나 주일 전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등 장학생을 선발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 공정하게 검토한 후 5등급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한 인은 이들이 교회의 전 부서에 배치되어서 남다른 열정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한금

2006년도 전반기에 당회의 승인으로 213명(전역 장학생 1명, 대학원생 26명, 대학생 122명, 고등학생 64명)에게 장학금 2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스러운 헌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천국 일꾼을 세우는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장학 헌금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민중과 모든 열방이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하며 장학 헌금에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소망

모든 장학생들은 반드시 장학금에 대한 십일조나 감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후배를 위하여 장학금 전액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향한 감사 없는 감사의 실천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10년, 20년 후에 자신이 헤매박은 장학금 그 이상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헌의 장학생들이 숭신수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큰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충헌의 장학생들은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증거하는 십자가 장병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들은 학생들에게만 천국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부터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절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 복음 위에 굳게 선 젊은이들과 함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청지기 훈련 후기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얼마 전 구역장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불만 한 가지가 점점 커져서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항상 편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런 제게 주신 청지기 훈련의 말씀 앞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고백했던 나인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집사, 구역장, 조장의 임무를 맡아 사람들 보기에는 ‘아, 저 사람 뭔가 열심히 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감투들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정작 주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며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혜경(집사, 12교구)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 얼마나 위대한지 청지기 훈련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 등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는 내 것이라고 기억하며 살아온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베푸셨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심을 통해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총의 자리에 앉아 수화 통역을 통해 예배를 맡겨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한없이 감사 하였습니다.

이제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혜영(에비다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처음과 같은 믿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지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왜 그리 힘든 일인지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도 뭐 신통하게 하는 것도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고”(시 37:5)의 말씀대로 저를 이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나태할 때 긴장감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옵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김미숙(집사, 16교구)

◇갈급한 심령에 꽃인 말씀

십자가의 의를 내 앞에 부각시켜 바짝 들이대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메달라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어긴 범죄자, 주님을 향해 대적하며 반항하는 자임이 금방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별빛 쏟아지는 광야 같은 갈릴ilee에 장승처럼 세워져 온통 길과 속이 흰히 들어다보이는 투명 인간이 되어 초라한 내 영혼은 이제 궁색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비장하고 단호한 결단, 곧 바뀌어진 삶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함을 발견했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함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쉬운 일인가? 이 땅에서 살면서 슬한 결심과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시행 착오의 반복이 아니었던가? 그리 만만치 않은 저 강물에 겁 없이 풍덩 뛰어들었다가 그림처럼 보이는 건너 편 낙원의 땅에 나도 도달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현실로 접속할 수 있을까? 교만의 비밀은 의외로 절묘한 해법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깨끗케 하심은 물론 미래까지도 통째로 책임지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열실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 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여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그에게 드러 그가 원하시는 목적대로 믿으시도록 온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만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윤술(집사, 18교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실제 삶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머리 속에만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는 나의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욕심을 채워 주셔야만 하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이었습니.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로 전락시켰던 저의 모습은 전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라.” 내가 살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겨 드리고, 나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받는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나의 생활을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닌 계속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윤경(교사, 사랑부)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단지 외국인이기애 우리를 환영하는 영혼들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정확한 현지어 발음과 20분장 정도 되는 전도 용어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지 한 장 없이 사역해야 했으므로 불안한 마음은 더 커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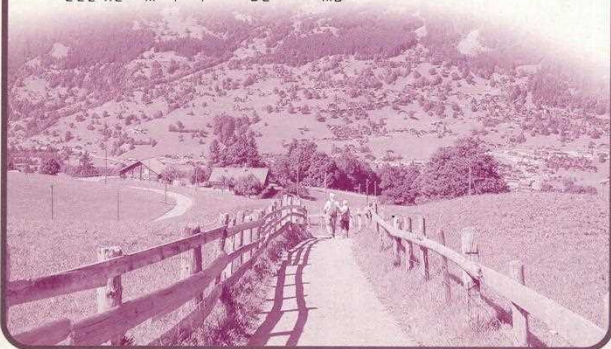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떠한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매우 감사한 것은 어느 마을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예비해 두신 진주 같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십자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지식층인 대학생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선교는 제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받을 '그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권덕률(대학부 2팀)

어린 증인들의 고백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중등3부 학생들의 간증입니다)

- 이른 새벽에 파송예배를 드린 뒤 공장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사명감에 불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지에서 저의 사명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만 체험했습니다.
- 지난 갈수록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생각할 때는 어려웠는데 막상 믿음으로 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고 쉬웠습니다.
- 뻔뻔한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전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매일 저녁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뿐이었습니다.
- 첫날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영혼은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 훈련은 많이 받았지만 내심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더욱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 집으로 들어가면 도망 가는 사람, 글을 잘 몰라서 고개를 내짚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들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설명해 주는 발음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알아 듣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같이 학교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꼬아낼 줄 알았는데 여기는 친절이 대해 주어서 한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도지를 읽어 보라고 하면 끝까지 봐도 내지 않고 잘 읽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 저들의을 통해서 부러진 복음의 씨앗들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선교였음에도 저는 온전히 선교준비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 저는 선교를 위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가 기원! 전쯤 급기야 제 몸애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준비 안 되었다고 가지 말라는 것인가?'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저를 복종하게 하였고 선교애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매순간마다 말씀과 찬송으로 저를 사로잡아 오직 선교애만 집중하게 하였습니다. 선교기간 내내 저의 마음은 아주 즐겁고 감사했고, 복음을 전하는 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는 그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 선교지의 사람들을보다 먼저 믿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으리라 다짐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선교지에 많은 교회가 생겨질 그날까지 분명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복음 전달자로 쓰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불순종의 영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김윤정(청년1부 2팀)

지난 주애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유년부	김홍기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양한원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김정운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중등1부	홍원석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구재완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이양선
2월 20일(월) ~ 2월 25일(토)	고등부	김영환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0일(월) ~ 2월 28일(화)	외선부	홍순길
2월 21일(화) ~ 3월 1일(수)	직 원	손정애

교회 탐방 98 마리아 전도회(10교구)

만삭의 몸으로도 전도하리라

1교구 마리아 전도회는 여전도의 중에서 가장 젊은 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도회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아닌 것 같다. 이들에게는 성경 속의 막달라 마리아(막 16장)의 승격을 느끼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 단순한 젊음의 발산이 아닌,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자.

1교구 마리아 전도회의 구성원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전도회입니다. (이수진 집사, 회장)

전도하는 전도회의 모습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왜 일이 안 열리냐고 고민도 많았지만 나날 때마다 외갓집에서 두려움에 이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연 권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들어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껏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송미혜 권말)

마리아 전도회가 교계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도밖에 하지 않고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때문에 전도를 나가지 못하면서 서로 아이들을 돌봐 주기도 합니다. (박경희 집사)

저희는 전도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무릅쓰고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를 아끼지 않아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수진 집사)

가끔 문도 안 열려 주고 저희들을 향해 저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집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선희 집사)

전도 체험을 나눌까요?

만삭의 회임이 저와 함께 전도하러 나온 모습을 보고 다른 회원들이 모두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열이 38도가 되는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나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

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희 집사)

건물을 잘때도 못 들어가지는 경비 아저씨의 눈을 가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경비 아저씨가 저희들이 지나가는데도 못 보아 무사히 전도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지연 권말)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더욱 가절이 기도하게 됩니다. (송미혜 권말)

저는 전도가 저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척과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많아 영혼에 대한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경희 집사)

전도인으로서의 각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영혼 구원에 쓰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집사)

예수를 전하는 도구가 된 것만 해도 기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나아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김지연 권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비록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동행 하려 합니다. (조선희 집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 전에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수진 집사)

얼마 전 평안성 중에도 새벽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미련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매일 새벽에 아남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송미혜 권말)

전도의 회원들과 관여는 말씀은?

내 삶이 비바 땅에 가면 하나님도 나를 땅에 밟아 주실 것입니다. 나가면 가면 주시니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바랍니다. (이수진 집사)

1교구 마리아 전도회원들은 깨달음도 많고 체험도 많았다. 그 중에서 이들이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도다. 시켜야 하는 전도다 아니라 자발적인 전도였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한 덩어리를 이룬 아름다운 전도회였다. (편집)

2006년도 첫 세례자 김종석 형제(10교구, 청년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교회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또 세례도 군대에 있을 때 단체로 받았던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적당한 타협하며 살아가던 중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 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어 기쁜적인 것을 갖추고 싶어졌습니다.

작년 8월에 학업을 보고 내가 진짜 해법을 받았구나! 라는 감동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한 달 반 정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던 탓인지... 지금은 모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믿는 것은 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 때 말씀을 듣고 제 안의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악과 세상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던 저의 죄악을 보며 가족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한다며 강제로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 는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으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저를 억누르더라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라 편집)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함 · 이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642	김지현	19	대학부	649	하예나	16	청년2부	656	김하	18	청년2부	663	정민	19	대학부
643	이진록	19	대학부	650	구지현	19	대학부	657	홍영민	19	대학부	664	정민	19	대학부
644	남영원	19	청년1부	651	김지현	19	청년1부	658	박지현	19	대학부	665	정민	19	대학부
645	홍영원	12	청년2부	652	이종훈	3	청년2부	659	박지현	19	대학부	666	정민	19	대학부
646	홍지현	19	청년1부	653	유영호	19	청년1부	660	조미영	2	청년1부	667	정민	19	대학부
647	김주희	19	청년1부	654	조남산	17	청년3부	661	정민	19	대학부	668	정민	19	대학부
648	권재현	19	청년1부	655	이재현	19	청년1부	662	정민	19	대학부	669	정민	19	대학부
649	고재현	18	청년2부	656	오은숙	19	청년2부	663	정민	19	대학부	670	정민	19	대학부
650	한준수	7	청년1부	657	류영지	18	청년2부	664	정민	19	대학부	671	정민	19	대학부
651	유근민	19	청년1부	658	김태희	19	청년1부	665	정민	19	대학부	672	정민	19	대학부
652	박광주	19	청년2부	659	류동진	19	청년1부	666	정민	19	대학부	673	정민	19	대학부
653	정민	14	청년2부	660	류영지	13	청년2부	667	정민	19	대학부	674	정민	19	대학부
654	박은하	19	청년2부	661	박지현	19	대학부	668	정민	19	대학부	675	정민	19	대학부
655	김재현	19	청년1부	662	정민	19	대학부	669	정민	19	대학부	676	정민	19	대학부
656	정민	4	청년1부	663	정민	19	대학부	670	정민	19	대학부	677	정민	19	대학부
657	박지현	19	청년1부	664	정민	19	대학부	671	정민	19	대학부	678	정민	19	대학부
658	정민	14	청년2부	665	정민	19	대학부	672	정민	19	대학부	679	정민	19	대학부
659	정민	14	청년2부	666	정민	19	대학부	673	정민	19	대학부	680	정민	19	대학부
660	정민	14	청년2부	667	정민	19	대학부	674	정민	19	대학부	681	정민	19	대학부
661	정민	14	청년2부	668	정민	19	대학부	675	정민	19	대학부	682	정민	19	대학부
662	정민	14	청년2부	669	정민	19	대학부	676	정민	19	대학부	683	정민	19	대학부
663	정민	14	청년2부	670	정민	19	대학부	677	정민	19	대학부	684	정민	19	대학부
664	정민	14	청년2부	671	정민	19	대학부	678	정민	19	대학부	685	정민	19	대학부
665	정민	14	청년2부	672	정민	19	대학부	679	정민	19	대학부	686	정민	19	대학부
666	정민	14	청년2부	673	정민	19	대학부	680	정민	19	대학부	687	정민	19	대학부
667	정민	14	청년2부	674	정민	19	대학부	681	정민	19	대학부	688	정민	19	대학부
668	정민	14	청년2부	675	정민	19	대학부	682	정민	19	대학부	689	정민	19	대학부
669	정민	14	청년2부	676	정민	19	대학부	683	정민	19	대학부	690	정민	19	대학부
670	정민	14	청년2부	677	정민	19	대학부	684	정민	19	대학부	691	정민	19	대학부
671	정민	14	청년2부	678	정민	19	대학부	685	정민	19	대학부	692	정민	19	대학부
672	정민	14	청년2부	679	정민	19	대학부	686	정민	19	대학부	693	정민	19	대학부
673	정민	14	청년2부	680	정민	19	대학부	687	정민	19	대학부	694	정민	19	대학부
674	정민	14	청년2부	681	정민	19	대학부	688	정민	19	대학부	695	정민	19	대학부
675	정민	14	청년2부	682	정민	19	대학부	689	정민	19	대학부	696	정민	19	대학부
676	정민	14	청년2부	683	정민	19	대학부	690	정민	19	대학부	697	정민	19	대학부
677	정민	14	청년2부	684	정민	19	대학부	691	정민	19	대학부	698	정민	19	대학부
678	정민	14	청년2부	685	정민	19	대학부	692	정민	19	대학부	699	정민	19	대학부
679	정민	14	청년2부	686	정민	19	대학부	693	정민	19	대학부	700	정민	19	대학부
680	정민	14	청년2부	687	정민	19	대학부	694	정민	19	대학부	701	정민	19	대학부
681	정민	14	청년2부	688	정민	19	대학부	695	정민	19	대학부	702	정민	19	대학부
682	정민	14	청년2부	689	정민	19	대학부	696	정민	19	대학부	703	정민	19	대학부
683	정민	14	청년2부	690	정민	19	대학부	697	정민	19	대학부	704	정민	19	대학부
684	정민	14	청년2부	691	정민	19	대학부	698	정민	19	대학부	705	정민	19	대학부
685	정민	14	청년2부	692	정민	19	대학부	699	정민	19	대학부	706	정민	19	대학부
686	정민	14	청년2부	693	정민	19	대학부	700	정민	19	대학부	707	정민	19	대학부
687	정민	14	청년2부	694	정민	19	대학부	701	정민	19	대학부	708	정민	19	대학부
688	정민	14	청년2부	695	정민	19	대학부	702	정민	19	대학부	709	정민	19	대학부
689	정민	14	청년2부	696	정민	19	대학부	703	정민	19	대학부	710	정민	19	대학부
690	정민	14	청년2부	697	정민	19	대학부	704	정민	19	대학부	711	정민	19	대학부
691	정민	14	청년2부	698	정민	19	대학부	705	정민	19	대학부	712	정민	19	대학부
692	정민	14	청년2부	699	정민	19	대학부	706	정민	19	대학부	713	정민	19	대학부
693	정민	14	청년2부	700	정민	19	대학부	707	정민	19	대학부	714	정민	19	대학부
694	정민	14	청년2부	701	정민	19	대학부	708	정민	19	대학부	715	정민	19	대학부
695	정민	14	청년2부	702	정민	19	대학부	709	정민	19	대학부	716	정민	19	대학부
696	정민	14	청년2부	703	정민	19	대학부	710	정민	19	대학부	717	정민	19	대학부
697	정민	14	청년2부	704	정민	19	대학부	711	정민	19	대학부	718	정민	19	대학부
698	정민	14	청년2부	705	정민	19	대학부	712	정민	19	대학부	719	정민	19	대학부
699	정민	14	청년2부	706	정민	19	대학부	713	정민	19	대학부	720	정민	19	대학부
700	정민	14	청년2부	707	정민	19	대학부	714	정민	19	대학부				

※ 중환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8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남산전도회 진도화장 열매회
일시: 26일(토) 15:30
장소: 교육관 51호
2. 안산주심 15회 부부기도회
일시: 27일(일) 6:00~6:40
장소: 갈릴리움
3. 안산주심 3회 부부기도회
일시: 3월(금) 9:00까지 후
장소: 배아바실

별 세

1. 함정주 디스코전 (황아유 성도의 부친, 장용이 집사의 사부, 13교구 중동구약) / 17일 밤세, 19일 장례
2. 김민배 씨 (김창수 성도, 김인수 성도의 부친, 김복성 집사, 유혜경 집사의 장모, 15교구 남한구약, 7교구) / 18일 밤세, 20일 장례
3. 박성신 디스코전 (홍경숙 권사의 모친, 김문섭 안수집사의 장모, 2교구 한양구약) / 18일 밤세, 20일 장례
4. 김민복 성도 (이화자 권사의 모친, 최진 집사의 장모, 6교구 상아구약) / 19일 밤세, 21일 장례
5. 장성진 성도 (장자철의 부친, 19교구 강남구약) / 20일 밤세, 22일 장례
6. 유재관 성도 (김준우 은희사의 남편, 12교구 원당구약) / 20일 밤세, 22일 장례
7. 이종주 성도 (윤정희 권사, 윤승민 권사의 모친, 강태술 성도의 장모, 2교구 한양구약, 6교구) / 22일 밤세, 25일 장례

결 혼

1. 홍정선 군(윤정희 권사, 이태중 집사의 아들, 대교교회)과 김귀영 양(김영규 집사, 함자옥 권사의 딸, 5교구) / 3월(일) 14:00 사창교회의 본당 (장남이 6년 소)

매미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본 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악이동시합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기도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2006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수요 성경공부	3월 15일 - 5월 31일(11주)	
· 오후반 3:00 - 4:30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제1교육관 307호)	
	모세강제나타나에스 그리스도(제1교육관 407호)	
· 저녁반 8:00 - 9:30	역사(제2교육관)나타나에스 그리스도(제1교육관 307호)	
교사 양성부	매주 일 오후 3:00 - 4:30	
교사 1부	3월 12일 - 5월 28일(12주)	장소: 제1교육관 301호
교사 2부	3월 12일 - 5월 28일(12주)	장소: 배아바실
찬양대원 양성부	매주 일 오후 3:00 - 4:30	
교사 1부	3월 12일 - 5월 28일(12주)	장소: 제1교육관 301호
교사 2부	3월 12일 - 5월 28일(12주)	장소: 배아바실
찬양전도대원 훈련	매주 일 오후 1:30 - 2:30	
교사 1부	3월 8일 - 5월 28일(8주)	장소: 제1교육관 407호
교사 2부	3월 8일 - 5월 28일(8주)	장소: 배아바실

*교육훈련원 행정실(301호) 교육훈련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2월

1. 모담 부흥 교회(역전역) 2. 지체 세례교인
3. 재물 서점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4. 사부 재물
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5. 사부 재물
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6. 사부 재물
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7. 사부 재물
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8. 사부 재물
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9. 사부 재물
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0. 사부 재물
1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1. 사부 재물
1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2. 사부 재물
1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3. 사부 재물
1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4. 사부 재물
1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5. 사부 재물
1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6. 사부 재물
1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7. 사부 재물
1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8. 사부 재물
1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9. 사부 재물
1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0. 사부 재물
2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1. 사부 재물
2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2. 사부 재물
2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3. 사부 재물
2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4. 사부 재물
2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5. 사부 재물
2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6. 사부 재물
2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7. 사부 재물
2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8. 사부 재물
2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9. 사부 재물
2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0. 사부 재물
3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1. 사부 재물

3월

1. 모담 부흥 교회(역전역) 2. 지체 세례교인
3. 재물 서점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4. 사부 재물
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5. 사부 재물
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6. 사부 재물
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7. 사부 재물
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8. 사부 재물
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9. 사부 재물
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0. 사부 재물
1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1. 사부 재물
1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2. 사부 재물
1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3. 사부 재물
1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4. 사부 재물
1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5. 사부 재물
1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6. 사부 재물
1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7. 사부 재물
1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8. 사부 재물
1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9. 사부 재물
1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0. 사부 재물
2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1. 사부 재물
2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2. 사부 재물
2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3. 사부 재물
2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4. 사부 재물
2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5. 사부 재물
2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6. 사부 재물
2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7. 사부 재물
2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8. 사부 재물
2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9. 사부 재물
2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0. 사부 재물
3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1. 사부 재물

4월

1. 모담 부흥 교회(역전역) 2. 지체 세례교인
3. 재물 서점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4. 사부 재물
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5. 사부 재물
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6. 사부 재물
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7. 사부 재물
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8. 사부 재물
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9. 사부 재물
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0. 사부 재물
1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1. 사부 재물
1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2. 사부 재물
1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3. 사부 재물
1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4. 사부 재물
1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5. 사부 재물
1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6. 사부 재물
1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7. 사부 재물
1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8. 사부 재물
1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9. 사부 재물
1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0. 사부 재물
2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1. 사부 재물
2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2. 사부 재물
2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3. 사부 재물
2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4. 사부 재물
2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5. 사부 재물
2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6. 사부 재물
2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7. 사부 재물
2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8. 사부 재물
2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9. 사부 재물
2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0. 사부 재물
3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1. 사부 재물

5월

1. 모담 부흥 교회(역전역) 2. 지체 세례교인
3. 재물 서점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4. 사부 재물
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5. 사부 재물
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6. 사부 재물
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7. 사부 재물
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8. 사부 재물
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9. 사부 재물
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0. 사부 재물
1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1. 사부 재물
1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2. 사부 재물
1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3. 사부 재물
1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4. 사부 재물
1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5. 사부 재물
1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6. 사부 재물
1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7. 사부 재물
1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8. 사부 재물
1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19. 사부 재물
1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0. 사부 재물
2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1. 사부 재물
21.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2. 사부 재물
22.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3. 사부 재물
23.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4. 사부 재물
24.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5. 사부 재물
25.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6. 사부 재물
26.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7. 사부 재물
27.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8. 사부 재물
28.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29. 사부 재물
29.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0. 사부 재물
30. 사부 재물 (복음사나타나에스 그리스도) 31. 사부 재물

◆ 제1교육위원회 교사 양성훈련

일 시: 26일(토) 12:20~13:50
장 소: 교육관 507호
제1교육위원회 교사들은 영성훈련과 중독되는 예배와 모든 교회 모임을 위해서도, 철저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20일 장남부 예배는 501호로 일시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 2부 재물 수련회

일 시: 3월 12일(토) 19:00부터~3월 19일(수) 17:00까지
장 소: 제2교육관 4층

◆ 단기선교 1부 수련회

일 시: 3월 12일(토) 14:00~18:00 장 소: 갈릴리움 외
대상자: 3월~6월 말 선교 출발 예정 팀장과 팀원 필참

2006년도 제4차 CMTC 운영 (교육과정: 2주간 장소: 갈릴리움)

구 분	3월 5일(다움 주일)	3월 12일(주일)
제1강(18:00-18:50)	사도행전 2장	신교 헌정의 영적 상황
제2강(19:00-19:40)	2006년 단기선교 정책과 방향	2006년도 선교사 사역 경험 및 개선 사항

3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모임

월	일	주일에(장로)	수요일에
		I II III IV V	I II
3월	5	이형수 김중구 최귀길 배준식 안동현 김종용 조승호 신종필	
	12	이 훈 한승규 김명달 김창수 김은호 최세진 이종희 박경자	
	19	김갑남 이철호 노광현 이태식 이광우 장철환 안근구 이영숙	
	26	황희만 김형곤 이종식 김민기 장철환 이부영 안순옥 사경자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27(토) 2/28(토) 3/1(수) 3/2(목) 3/3(금) 3/4(토) 3/5(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차진숙 김태석/김혜림 조규호/박원희 조규호/안은호 조규호/현준환 이종태/한영준 나광영/김민석

예배담당 안내 (3/1-3/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도	설 고
3/1	수요1	나혜한 권희봉(나혜나 찬양대)	부흥회	김재호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찬양하라(시 121:1) 김성관 목사
3/1	수요II	권부여 외지 없이 (설교대 찬양대)	정성영	김중자	참된 회개(레 18:30-32) 김태석 목사
3/3	금요예배	권석희/알도 아사린/태니 아명진	양재용		김성관 목사
3/5	주일 I	(예배 전 헌양)	윤승인	이형수	시험받으신 예수님(눅 4:1-2) 김종희 목사
3/5	주일 II	나아눔 공복을 배제하여 /꽃을 노닐며(유니버설 오케스트라)	장 훈	김중구	시험받으신 예수님(눅 4:1-2) 안명덕 목사
3/5	주일 III	이루 고대 없고/ 피노 5중주(합창부 오케스트라)	정현민	최귀길	시험받으신 예수님(눅 4:1-2) 김성관 목사
3/5	주일 IV	주말에 찬양하기 위하여/ 이/은 송송(유니버설 오케스트라)	장종신	배준식	시험받으신 예수님(눅 4:1-2) 안명덕 목사
3/5	주일 V	저는 온통 사랑하여/ 태니 아명진/ 태니 아명진(합창부 오케스트라)	이형수	안동현	시험받으신 예수님(눅 4:1-2) 김종희 목사
3/5	주일장	합창부 제1석송장단 / 트렌드 연주대 / 트렌드 연주대	이정훈	김종용	아바저에게 주위에 감사하라(마 6:7-8) 김성관 목사

기도회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집회	오후 10:30	금요집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수화입니다.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Bible Office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사 망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 망 부	오전 11:00	복자전 제1회1층
예배다부	오전 9:00(화목) 오전 1:00(장로)	제2교육관 1층
타 아 부	(주)오전 8:30~9:40 (월)오전 8:30~9:40	교육관 110호
제각각양육부	오후 12:15	배아바실
충원여인회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건강연구소	주간교육	충원복자전
국회헌법연구회	오전 11:00	타 아 홀

2월 충헌 기도의 창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시어 주 시고, 영육 간의 강권함을 주시어.
2. 충헌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회개하며, 자기 부인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3.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 관자가 없게 하소서.
4. 1:1 전도와 매일 함께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주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자전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자)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교 구약 좌석 안내

3월 1일(수) - 4월 9일(주일)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본 당
III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국악이동시합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기도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심 · 위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감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영현	이병학	이 훈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남승우	김중구	최귀길	이창호	최진석
총무	총무	총무	총무	총무
김갑남	이종식	임부영	이갑재	장종용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가목회장
김종필	이정우	김대환	한승규	김영수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신교목회장
김한기	원종철	이형수	안동현	황희만
제1교육관목회장	제1교육관목회장	제1교육관목회장	제1교육관목회장	제1교육관목회장
김구형	최은미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장태두	박홍규	권영우	조종환	배준식
전도부	전도부	전도부	전도부	전도부
김영달	이철호	최지훈	노영현	박철구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정정진	신상수	노영현	김영현	김영현
안목회장	안목회장	안목회장	안목회장	안목회장
이달우	장철환	김성관	한철우	윤승인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정현민	안현진	김대환	김정우	김종신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이창식	김은철	전태환	김진구	전계성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김정우	장승규	전태환	서영식	김대환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서두식	최희우	신선진	유상대	박상대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김규식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4교구장

■ 전도인사